

그 많던 나무를 도대체 누가 다 먹어치웠을까?

숲을 개간해온 인류의 역사

주경철 |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근대 이전의 인간은 적어도 천 종이 넘는 동식물의 이름과 잠재적인 쓰임새 등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숲은 공동 소유물이었고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웠다. 하지만 근대 이후로 넘어와 건축·조선·땃감·제지용으로 무참히 잘려나가면서 숲은 사유재산화됐다. 특히 숲을 둘러싼 서구 열강들의 무역전쟁은 숲을 점점 황폐화시켰다.



인류의 역사는 삼림 개발의 역사다. 근대 이후부터 대규모 목재기근을 겪어온 지구는 전체 나무의 절반 가까운 숫자를 잃어버렸다. 사진은 인부들의 벌목작업 현장.

인류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태초에 인간은 본래 '숲속의 동물'이었다고 한다.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도 대부분의 인간은 숲을 완전히 벗어나서 산 적이 없다. 최근 들어 철이나 플라스틱 같은 물질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에는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목재였다. 건축, 도구 제작, 조선(造船)의 재료와 연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나무를 태워 얻는 목회(木灰) 제품들은 유리·직물·비누 등 각종 공업에 핵심적인 원재료였다. 비유하자면 과거에 목재는 오늘날의 철과 석유를 합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물질이었다. 게다가 숲에서 나는 온갖 산물들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었다. 과일과 버섯, 사냥감, 돼지(과거 유럽에서는 숲에 돼지를 풀어서 도토리를 먹여 키웠다), 벌꿀 등의 식품을 얻고, 밀랍은 양초를 만드는 재료가 됐다. 과거의 우리 조상들에게 숲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숲 속의 빈터에서 시작한 문명

현재 지구상의 일부 지역에 남아 있는 수렵 채집 민족을 통해 이런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들은 적어도 천 종이 넘는 동식물의 이름, 각 종의 생태학적 특성, 잠재적인 쓰임새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한다. 뉴기니 포레족의 삶 속에 들어가 30여 년을 지낸 어느 서양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느 날 포레족 사람들과 함께 숲에 들어간 그는 포레족 사람들이 버섯을 따서 먹는 것을 보고 혹시 독버섯일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벌떡 화를 내며, 안전한

현재 지구상의 일부 지역에 남아 있는 수렵 채집 민족을 통해 이런 점을 유추해볼 수

버섯과 독버섯을 구분 못하는 인간이 어디 있다고 소리치면서, 그 자리에서 29가지 식용 버섯의 이름과 그것들이 많이 나는 곳을 줄줄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아마 이것이 원래 자연 속에서 사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날 슈퍼마켓에서 이름표만 없다면 버섯 종류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현대인은 인간의 본모습으로부터 참 멀리 벗어나 있는 셈이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면 '삼림 개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석기 시대에 정주와 농경이 시작된 이래 인구가 늘면서 숲은 계속 줄어들었다. 대개 농경지를 얻는 초기의 방식은 숲을 불태워서 밭을 일구는 원시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다가 건축·조선·땃감용 목재를 많이 벌채했다. 그러나 적어도 근대 이전의 상황을 보면 인간의 활동이 숲을 완전히 황폐화시킨 것은 결코 아니다. 차라리 인간 세계가 숲의 변두리에 위치해서, 아니면 숲에 둘러싸여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불어에 'clairière'라는 단어가 있는데, '숲속의 빈터'로 해석되는 이 단어야말로 중세 유럽 문명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말일 것이다.

근대 이후 대규모 벌채로 '목재기근' 일어나

인간에 의해 숲이 크게 줄어든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이제 개간과 농경지 확대는 이전과 비교가 안되게 큰 규모의 사업이 됐다. 양과 염소의 수가 크게 늘면서(16세기에 영국에만 8백만 마리의 양이 있었다고 한다) 나무의 새순을 먹어치우는 것이 숲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다. 각 나라마다 상선과 전함을 만드는 데 엄청난

양의 목재가 들어갔다(초대형 전함 한 척을 짓는 데는 웬만한 소규모 도시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가 들어간다고 한다). 16세기에 프랑스에서 제철소가 크게 늘어나자 이곳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느라 단기간 내에 프랑스 전역의 숲이 1/6이나 사라졌다. 조만간 유럽에서는 본격적으로 '목재기근'이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숲과 목재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게 됐다.

우선 목재 산업과 목재 무역이 대규모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숲에서 베어낸 목재를 강을 통해 하류로 떠내려보내는 사업은 점점 더 먼 상류 지역으로 이전해 올라가서, 알자스 지역의 나무를 베어 네덜란드에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폴란드의 참나무가 해상수송을 통해 포르투갈에 보내지고, 노르웨이의 키 큰 소나무가 유럽 전역에 팔려나갔다. 이것도 모자라서 18세기 이후에는 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 유럽으로 목재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의 티크를 수입했다. 역사학자들도 거의 주목하지 않지만 목재 및 임산물은 근대 초기부터 발전하고 있던 자본주의적 산업과 국제무역의 가장 중요한 거래 대상의 하나였다.

공동 소유물에서 사유재산으로 숲의 개념 바뀌어

자연히 숲에 대한 소유와 권리 관계, 그에 대한 사회적 의미도 변했다. 사실 근대 이전에는 숲이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관념이 희박했다. 배타적인 권리라는 것이 있다면 영주가 독점적으로 사냥권을 주장하는 정도의 개념이 있었을 뿐이고, 대개는 마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모두 숲을 이용할 수 있었다. 프랑스 혁명은 숲에 대한 소유와 권리의 변화라는 문제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됐다. 혁명으로 공유지와 공유림이 분할·매각됐다. 교회소유의 숲이나 망명 귀족의 숲은 국가가 몰수해서 판매해 버렸고 이 과정에서 숲의 매각과 관련된 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마을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의 소유물"은 이제 분할해 누군가에게 매각하는 재산이 됐고, 매입자는 수익이 큰 방식이라면 거리낄 것 없이 숲을 파헤치거나 팔아치웠다. 이 과정에서 숲의 남벌은 피할 수 없는 대세였다.

19세기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기간은 숲과 인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시 한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목재 대신에 다른 물질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점에서 삼림 별채가 완화됐으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예컨대 연료로서 나무 대신 석탄과 석유가 더 중요하게 됐다는 점을 보라). 그러나 경제의 급속한 팽창은 더욱 많은 양의 목재 소비를 부추기는 법이다. 예컨대 철도가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거기에는 엄청난 양의 갱목이 사용됐고, 광산 개발에도 대량의 침목이 깔렸다. 현대 산업 가운데 목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업종은 제지업이다(모든 산업 원료용 목재 가운데 1/4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인이 1인당 1년에 317kg의 종이와 판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보듯 제지용 펄프 생산이야말로 숲이 사라지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50억 헥타르의 숲을 먹어치운 저주할 문명세계

최근의 추산에 따르면 인류가 정착 생활에 들어갈 무렵 지구상에는 대략 62억 ha의 숲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약 42억 ha의 숲이 있어서 결국 전체 삼림의 1/3 가량이 줄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숲 가운데 원래의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된 곳은 약 15억 ha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는 인간에 의해 숲이 변형된 다음 다시 조림된 이차림(二次林)이다. 원시림과 이차림은 생물자원의 풍부성이나 생태학적 중요성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인공조림은 목재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개 단일수종으로 기계적으로 조성한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숲은 자연 환경으로서 존재하며 조정과 균형으로 기능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이 숲 자체가 병충해 등에 대단히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오늘날 남아있는 원시림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해에 약 1천7백만 ha의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는데 (물론 그 중요한 원인은 서구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다), 이로 인한 환경 파괴의 악영향이 감지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삼림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고 또 파괴한 주역은 서구의 주도적인 국가들이었다. 이익은 서구가 누리고, 그 피해는 전세계에 돌아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사실 숲이란 단지 많은 나무가 밀집해 있는 곳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생태학적으로 "토양, 하층토, 부식토, 미생물, 식물군, 곤충부터 새에 이르는 모든 동물들"이 어우러져 균형을 이루는 곳이다. 인간은 단지 이곳에 세 들어 사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마치 자연 전체의 주인인 것처럼 이곳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파괴해버렸다. 지구 전체로 보면 마치 인간이 악성 암세포처럼 홀로 증식하면서 자연을 죽게 만든 것이다. 역사를 통해 무엇인가 배우는 것이 있다면,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현재의 방식이 지속된다면 종래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친다는 것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우리의 터전을 살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리라. ■

주경철 교수는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은 책으로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 옮긴 책으로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등이 있다.